

여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제 총력

올 5640그루 고사 등 피해 늘어... 가뭄·이상고온 영향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총 5640그루로 상반기 1974그루, 하반기 3666그루가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소나무재선충병 발견

첫해 10만937그루가 고사한 이후 2011년 1095그루, 2012년 1030그루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올해 고사율이 점차 늘고 있어 방제당국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퍼뜨리는 솔수염하늘소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남쪽에 주로 서식하는 해송, 육송, 리기다

(pitch pine) 종의 감염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방제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매개충에 대한 천적이 없어 감염 시 한 달 내 고사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예방과 감염목 유통방지 등 방제작업이 급선무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여수 전역의 고사목 발생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974그루를 제거했으며, 나머지 3666그루 벌목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고 있다.

시는 돌산·율촌·화양·도심일부 지역 등 선단지(감염목 군락 가장자리)와 단목발생 지역에서 고사한 893그루에 대해 직접 방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라·상암·남수 등 6개 지구 집단발생지에 고사한 2773그루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벌목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약제 훈증처리로 살균과정을 거친 뒤 파쇄해 톱밥 등으로 가공 처리하고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내년 4월까지 인·허가 지역 내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와 함께 소나무류를 무단 적재하고 있는 농가나 찢질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면적이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며 "감염목이 임산연료, 조경목 등으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완도 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정부 나섰다

군·수산과학원 협약

홍보관 운영·지원

“2014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완도군은 12일 “국립 수산과학원과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박람회 기간 해조류 산업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박람회 관련 전문 부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 부문 부대행사는 해조류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체험행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함께 수출상담회, 생태 수산도시 시장회의, 제2회 바다식물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박람회는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자’란 주제로 완도항 일대에서 내년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완도는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의 45%를 차지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문 부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성 제암산 ‘더늬길’ 노약자 트레킹 “굿~”

자연휴양림에 5.8km

보성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제암산 자연휴양림 더늬길(무장에 산악트레킹로드)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노약자나 유아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 10월에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수변데크를 포함한 산악트레킹로드 5.8km를 개통했다.

트레킹로드는 데크시설로 숙박 시설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인 물빛언덕의 집, 차향기 가득한 집, 꽃향기의 집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15ha에 달하는 편백 군락지인 ‘happy500고지’를 지나 제암산 정상상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삼나무 숲, 곳곳에 핀 야생화와 새소리, 물소리 등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또 담긴 저수지 물에 비친 산자락

의 모습, 나뭇가지 그림자는 또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해 준다.

지난 주말에는 보행 보조차와 전동차에 몸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움직임이 가능한 노년 40여명이 제암산자연휴양림 더늬길을 산책했다. (사진)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연간 15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등산객이나 숙박시설 이용객, 여름철 캠핑을 즐기 위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보성군은 제암산자연



휴양림 내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7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18동과 더늬길(무장에 산악트레킹로드)

을 완료하고 어드벤처 및 썰라인 시설, 웰컴센터, 숲속교육관 조성 등은 한창 추진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남해고속도 섬진강교 안전 진단

광양시, 내년 3월까지

광양시는 12일 “하동군을 연결하는 (주)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73년 남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와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사이에 설치된 길이 524미터의 2차선 교량에 대해 용역비 1억4000여만원을 들여 2014년 3월 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다. (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진단 용역에서는 교량 외관조사와 비파괴 현장 시험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앞으로 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군과 협의를 통해 교량을 보수·보강해 재개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정읍 **16**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12일 오후 여수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김홍석 여수시장,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23개 단체회원, 시청 간부공무원 부녀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12일 오후 여수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김홍석 여수시장,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23개 단체회원, 시청 간부공무원 부녀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섬진강기차마을에 로즈유스호스텔 들어선다

19억 들여 내년 3월 개관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기차마을 로즈유스호스텔(rose youth hostel)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곡성군은 12일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된 로즈유스호스텔이 현재 연면적 1799.2㎡의 건축물 내부를 인테리어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모든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즈유스호스텔 내에는 모두 4개동에 31개의 객실이 있으며, 성

인 154명, 청소년 185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취사장, 세탁실, PC룸, 휴게실 등 다용도실도 갖추고 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1004장미공원, 놀이시설 등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추고 있으나 주변에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로즈유스호스텔을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신축해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드림랜드, 청정전통체험관등 다양한 체

험도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즈유스호스텔을 곡성청소년야영장, 오토캠핑장, 카누장 등 체험시설과 연계한 웰빙 휴식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수확여행단 등 단체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쌀 부문 이재문·원예특작 김항익씨

해남, 농업인대상 수상자 5명 선정

해남군은 12일 “최근 심의를 거쳐 2013년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수상자로는 고품질·친환경 쌀 부문 해남을 이재문(54)씨, 원예특작 부문 산이면 김항익(45)씨, 농산물가공 부문 삼산면 김인수(53)씨, 축산 부문 계곡면 임희성(46)씨, 임업 부문 현산면 정선자(여·58)씨 등이다.

고품질·친환경 쌀 부문의 해남을 이재문씨는 고품질쌀수확시험을 설립해 농기계 공동구입, 농작업 공동수행 등의 노력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했고, 원예특작 부문의 김항익씨는 버섯종균을 직접 생산하는 기술을 도입 원가절감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농산물가공 부문 김인수씨는 친환경 쌀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처를 확대했으며, 축산 부문 임희성씨는 젓소의 무항생제 우유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 임업 부문 정선자씨는 무농약, 무동물성 퇴비를 사용한 친환경 농·임산물 생산한 뒤 가공식품을 개발해 직거래장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남군 농업인대상은 영농현장에서 열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에 크게 노력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0명을 시상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